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10월

선교편지 제 12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카카 지역의 선교 사역은 디고스의 사역과 여러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바카카 마을의 주민들의 구성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마을 한편에 모여 살고 있고, 좀더 자유분방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마을 공터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고스 주민들은 생활은 어렵지만 형편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고 있다면, 바카카 주민들은 다바오라는 도시 내에서 강변을 따라 형성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카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 보입니다. 또한 디고스 마을 분위기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집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바카카는 대낮부터 시끌벅적 합니다. 마을 공터 한편에서는 술판이 벌어져서 소란스럽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다양한 도박과 놀음판이 벌어져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청년들은 배구를 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맨발로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이와 함께 마을 공터 진흙 밭에는 돼지들이 배를 깔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서, 사역 초기부터 저희들의 선교 대상은 마을 어린이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기를 기대하며,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 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정착되어 오전 9시가 되면 앞을 다투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어린 아이들로 분주 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모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 전부터 적어도 교회에 오는 날만큼은 간식이 아닌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만, 교회내에서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미루어 왔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9월 초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주일 Feeding Program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6시경부터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좋아하는 '루가우'라는 '닭 죽'과 흡사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예배 후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가우'는 본인이 집에서 가져온 그릇과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치 빈 도시락 통을 들고 오듯이 빈 그릇을 흔들며 교회에 출석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릇을 들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루가우'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와 '루가우' 배식을 마친 후에 어른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Feeding Program과 더불어 어른들에게는 매주 쌀, 국수등과 같은 식품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물품이 주민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참으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Feeding Program과 식료품 배급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섬김과 사랑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습 3:12)**





9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인들 가정을 심방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후 6시 이후에 심방을 가게 되는데, 낮에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로등도 없고 길 표시도 없는 곳을 밤에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에 제대로 찾아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모두들 깨끗하게 차려 입고 산뜻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 평일 저녁 시간 집에서 만나는 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듯이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조명도 불충분한 좁은 방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온 식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심방을 할 때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항상 웃는 저들의 미소와는 달리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다양한 병으로 고통 중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간의 불편한 관계와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로 동감하게 됩니다.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면 그동안 밀린 눈물을 쏟아 내곤 합니다. 아쉽게도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한 마음이 되어 끝까지 잘 들어주는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힘을 얻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미소를 회복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디고스예일교회의 한 주간은 매우 분주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가정 심방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수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 저녁에는 구역별 성경공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익핏 마을에서 예배와 어린이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일 오전에는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 금요일은 띠구만 초등학교에서 학원 사역,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다시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 장학사역에 속한 대학생들의 제자 훈련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다바오의 바카카 교회에서는 토요일 어린이 성경공부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주의 양들이 온전히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 6:1)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